

현대차·기아, 합산매출 300조 돌파 “철강·LNG로 수익성 방어”

현대차 186조, 기아 114조 달성
양사 지난해 매출 역대최고 기록

합산 영업이익은 20조5460억
美 관세부담비용에 영업이익 감소

현대자동차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현대자동차·기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합산 매출 300조원을 돌파했다. 양사는 매출 300조 시대를 개막했지만 미국 관세 여파로 총 7조2000억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면서 수익성은 크게 악화됐다.

현대차는 29일 지난해 연결 기준 연간 매출은 186조2545억원으로 전년 보다 6.3% 증가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11조4679억원으로 전년 보다 19.5% 감소했다. 전날 실적을 발표한 기아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14조1409억원, 영업이익 9조781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6.2%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28.3% 감소한 수치다. 기아 역시 지난해 매출이 역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현대차·기아의 합산매출은 300조3954억원, 합산 영업이익은 20조546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6.3% 늘고, 영업이익은 23.6% 줄었다. 현대차·기아가 미국 관세 부담 비용으로 총 7조2000억원을 추산하고 있어 지난해 대비 영업이익 감



현대차 기아 양재동 본사.

소분 6조3607억원을 감안하면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양사는 올해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 확대속에서 고부가 차량을 중심으로 수익성 확대에 집중할 방침이다.

기아는 평균 단가가 높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판매 확대에 위기를 돌파할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기아의 텔루라이드와 셀토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추가해 SUV와 하이브리드차 중심으로 판매를 늘리고, 유럽에서는 EV2를 시작으로 EV 모든 제품군을 완성해 유럽 내 지배력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가 절감을 통한 성장도 지속해 나간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고부가 차량과 함께 로봇틱스 등 피지컬 AI와 같은 미래 사업으

로 대응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친환경차 라인업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기술에 17조8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현대차의 올해 연결 기준 연간 가이던스는 판매 415만 8300대, 전년 대비 매출액 성장률 1.0~2.0%, 영업이익률 목표 6.3~7.3% 등으로 제시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올해 글로벌 주요 시장의 성장을 둔화와 신흥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거시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치밀한 내부 진단 및 과감한 혁신으로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지난해 영업이익 1조1809억… 35% ↑



매출 45.9조… 전년 비 5.7% 줄어
불확실성 속 흑자기조 현금흐름 유지

LG화학이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을 큰 폭으로 늘리며 수익성 방어에 성공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와 석유화학업황 부진 속에서도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과 재무 관리 강화를 통해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LG화학은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45조9322억원, 영업이익 1조1809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7% 줄었

으나 영업이익은 35.0% 증가했다.

작년 4분기 영업손실은 4133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매출은 11조1971억원으로 8.8% 줄었고 당기순손실 역시 1조5728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로 돌아섰다.

차동석 LG화학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장은 “급변하는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석유화학, 전지소재 등 주요 사업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였으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추진, 엄정한 시설투자(CAPEX) 집행, 보유 자산 유동화 등을 병행해 흑자 기조의 현금흐름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 LG화학

의 지난해 매출은 약 23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LG화학은 대외 경영환경을 고려해 올해 매출 목표를 23조원으로 설정했다.

차 사장은 올해 사업 전망과 관련해 “석유화학, 첨단소재, 생명과학 등 각 사업 부문별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며 고부가 산업 구조로의 전환 기반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침을 밝혔다. 차 사장은 “어려운 경영환경이지만 향후 실적 개선에 따른 배당 성향 확대와 LG에너지솔루션 지분 매각 시 확보되는 재원의 약 10%를 주주에게 환원하는 등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ESS·소형전지 성장… 영업이익 134% ↑



지난해 매출 23.6조, 영업이익 1.3조
ESS 시장 ‘구조적 성장’ 국면 진입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해 전기차(EV) 수요 둔화 속에서도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와 고수익 제품 중심 전략을 통해 수익성을 크게 개선했다. 올해는 자산운영 효율화와 포트폴리오조정을 병행하며 ESS와 소형전지를 중심으로 한 성장 전략을 이어갈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5년에 매출 23조6718억원, 영업이익 1조3461억원

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25조6196억원) 대비 7.6%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전년(5754억원)보다 133.9%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6조1415억원, 영업이익은 1220억원 손실이다. 매출의 경우 전분기(5조6999억원) 및 전년 동기(6조4512억원) 대비 각각 7.7% 증가, 4.8%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6013억원) 대비 적자 전환, 전년 동기(2255억원 손실)와 비교했을 때는 45.9% 증가했다.

4분기 실적에는 북미 생산 보조금 3328억원이 반영됐으며 이를 제외한 영

업이익은 4548억원으로 적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ESS 시장이 ‘구조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하고, 전기차(EV) 시장은 10%대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글로벌 ESS 설치량은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 전동화 확대, 기후 변화에 따른 냉난방 수요 증가, AI 데이터센터 확산 등을 성장 배경으로 꼽았다.

주요 전략 시장인 북미 시장에서는 EV 수요가 구매 보조금 일몰 영향으로 둔화될 수 있지만, ESS 시장은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정책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평균을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일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포스코홀딩스

지난해 매출 69조, 영업이익 1.8조
일회성 손실 몰려… ‘일시적 저점’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69조950억원, 영업이익 1조8270억원, 순이익 5040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출·영업이익·순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5.0%, 15.7%, 47.4% 감소했다.

포스코홀딩스 측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강화된 보호무역주의 환경 속에서도 철강과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의 견조한 이익을 바탕으로, 이차전지소재 부문의 초기 가동 비용과 인프라 부문의 일회성 손실에도 불구하고 단기 수익성을 방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외 철강 및 리튬 광산 투자 등을 통해 장기 성장 기반을 확보했으며 올해 해외 철강 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리튬 가격 회복에 따른 상업생산 본격화, 일회성 비용 해소, 적자법인 구조개편 등을 통해 실적 개선 동력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철강부문은 포스코 별도기준 매출이 전년 대비 6.8% 감소한 35조110억원을 기록했지만, 에너지 효율 극대화 등 구조적 원가 혁신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0.8% 증가한 1조78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4분기 주원료비 상승과 주요 공장 수리로 생산·판매량이 일시 감소했지만, 전 분기 대비 판매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을 방어했다.

이차전지소재부문은 포스코퓨처엠이 리튬 가격 약세에도 전년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했다. 다만 포스코아르헨티나 등 지난 2024년 말 준공된 신규 공장들이 상업생산을 개시하며 초기 가동비용

이 일시 반영돼 연결 영업이익은 지표상 하락했다. 회사는 올해 가동 안정화로 수익성 저하 요인을 빠르게 해소할 계획이다.

인프라부문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호주 세넥스에너지 LNG 증산과 인도네시아 팜 기업 인수 등 밸류체인 확장으로 견조한 이익을 유지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플랜트 수주 확대에도 공사 중단에 따른 일회성 손실이 반영되며 적자 폭이 확대됐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4분기 주요 공장 수리, 적자법인 매각 비용, 건설사업 일회성 손실이 집중되며 일시적인 실적 저점을 기록했으나 올해는 철강·LNG 사업의 안정적 수익과 리튬 상업생산 개시 효과로 실적 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올해 국내외 주요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저수익·비핵심 자산 구조개편을 통해 직접 수익으로 연결되는 중점 경영계획도 밝혔다.

철강부문은 포항(에너지용 강재)·광양(모빌리티 강재) 제철소별 특화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환원제철 데모플랜트 착공 등 탈탄소 전환에 속도를 낸다. 해외 합작 프로젝트도 ‘완결형 현지화 전략’에 따라 추진한다.

이차전지소재부문은 아르헨티나 리튬 상업생산 돌입으로 수익성 개선이 본격화되며, 호주 리튬광산 지분 인수 완료 이후 하반기부터 실적 기여가 시작될 예정이다.

인프라부문은 호주 세넥스에너지 LNG 증산 체제와 인도네시아 팜 기업 인수를 기반으로 에너지 밸류체인을 강화해 추가 이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dhale@

CJ올리브영, 입지별 맞춤전략 고도화

광화문에 ‘올리브베리’ 매장 오픈
직장인·관광객 중심 유동성과
헬스장 등 웰니스 인프라 공략

국내 라이프스타일부터 미용의료, 글로벌 MZ 트렌드 중심지까지. CJ올리브영이 입지별 맞춤 전략으로 K쇼핑의 지형도를 고도화하고 있다.

29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광화문 디타워에 CJ올리브영의 ‘올리브베리’ 첫 오프라인 매장이 문을 연다. 직장인이 많고 국내외 방문객 중심의 유동성을 갖췄으며 헬스장 등 웰니스 인프라가 밀집해 있는 장소다.

올리브베리는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플랫폼이다. 올리브영이 그간 구축한 헬스 부문을 웰니스 전반으로 확장해, 130여 평 규모 복층 매장에 500여 개 브랜드의 3000여 종 상품을 선보인다.

1층 매장에는 간편식을 주로 내놓는다. 샐러드, 식사 대용 고단백질 등을 구성해 바쁜 일상에서 건강관리형 식단을 직접 챙기기 어려운 직장인 수요를 공략한다. 2층에서는 웰니스 제품군을 보다 세분화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헬스 스낵, 라이트 밀 등을 비롯해 이너뷰티, 슬리밍, 슬립뷰티 등을 전문적으로 소개한다.



‘올리브베리’ 전경.

/CJ올리브영

활기찬 에너지 보충과 편안한 휴식까지 아우르는 것도 특징이다. 운동용 에너지젤이나 스포츠용품부터 차(茶) 및 대체 커피와 같은 카페인 대용 음료, 아로마테라피, 조명, 파자마 등까지 다양한 상품들로 웰니스 소비 선택지를 넓힌다.

올리브영은 올리브베리를 통해 국내 웰니스 산업의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데이터를 보면 최근 10년간 웰니스 부문은 꾸준히 커졌다. 2025년 기준 올리브영 내 웰니스 매출은 2016년 대비 864%, 같은 기간 해당 구매 고객 수는 507% 성장했다. 또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닐슨아이가 지난해 진행한 조사에서 전 세계 10명 중 7명이 ‘현재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청하 기자 mlee236@